



미래엔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영상

꿈나침반 활용집



MiraeN 교과서

동아일보 교육법인

예체능 계열

- 36. 예술과 의학을 넘나드는 전문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 37. 무대 뒤 숨은 조력자 '보컬 트레이너'
- 38. 시선과 마음을 끄는 전략가 '비주얼머천다이저'
- 39. 옷에 인물을 그려내는 '의상감독'
- 40. 맛과 멋을 연구하는 '파티시에'



예술과 의학을 넘나드는 전문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인천가톨릭대 대학원 바이오메디컬아트전공 교수 윤관현

의학도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의학 서적, 학교에서 활용되는 과학교과서, 새로운 수술법을 알리는 강연 자료... 이 모든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이지요. 정확함과 정밀함을 요구하는 의학정보. 그런데 왜 사진이 아닌 그림이 활용될까요? 복잡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람의 몸을 알기 쉽게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사진보다 그림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어려운 의학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뼈, 근육, 가느다란 혈관 등의 복잡한 인체구조도 그림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미술관이나 미술교과서에서 접하는 그림들과는 조금 다른 그림. 이런 그림은 누가 그릴까요? 바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은 의학 논문 및 서적, 학회 자료, 환자 교육용 자료, 과학교과서, 과학 잡지 등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그림이 가진 힘으로 의학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며 미술과 의학을 넘나드는 전문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될까요? 아니면 뛰어난 의학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하는 일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봅시다.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하는 일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학 정보 담은 그림 그린다!

의뢰인의 그림 요청 → 의뢰인과 대화하며 강조하거나 생략할 부분 결정 →
참고자료 보며 그림 구상 → 연필로 스케치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채색

때로는 정확한 그림 위해 직접 해부하기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떻게 일할까요? 먼저 의학 정보가 들어간 그림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그림 요청을 받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절대로 요청을 받은 즉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림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생략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지요. 논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에 착수합니다. 여러 의학서적과 사진 및 수술 영상들을 참고하며 그림을 구상하고, 때로는 정밀함을 위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해부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 구상이 끝나면 연필로 스케치를 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색상을 넣고 꾸밈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그림이 완성됩니다.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요즘.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방식 또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작한 그림들은 평면 작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학 관련 그림을 3D 이미지로 만들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메디컬 일러스트는 무엇보다 정확성과 정밀함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겠지요? 따라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그림과 관련된 컴퓨터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게 필요한 자질은?** 미적 능력 + 생물학 지식과 의학 지식... 사명감과 책임감도 필수

그림을 잘 그리는 미적 능력은 기본
생물학 지식과 의학 지식도 고루 갖추어야!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은 누군가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
▶사명감과 책임감도 중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잘 그리는 미적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생물학 지식과 의학 지식 또한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의학정보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야 할지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리는 그림은 의학도들의 의학 서적, 치료법 설명자료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에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함과 나의 그림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대학에서 미술 관련 학과 전공, 대학원에서 바이오메디컬아트 등 전공해야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대학에서 미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입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보다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공부와 훈련이 필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해부학이나 바이오메디컬아트를 전공해야 합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의과대, 제약회사, 의학전문출판사 등의 회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험에 합격하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생명 과학 관련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습관 길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 구조 그리는 일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습관 가져야!

고령화 시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전망은 매우 밝다!

미술과 의학을 넘나드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 실력과 의학 지식을 잘 접목시켜야 하지요. 윤관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인천가톨릭대 대학원 교수)는 “생명 과학에 흥미를 갖고, 관련된 내용들을 시각적으

로 구상해보고 표현해보는 습관을 가져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체 내부를 그리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의학 정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따라서 질병상태와 수술방법 등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적인 자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자료를 생산해내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림과 의학, 두 분야에 모두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요?